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0월 14일(금)

...(음력 9월 19일)...

Пятница

14 октября 2022г.

№ 40 (1200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의 3번째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아버지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주 노후 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해 연방 예산에서 22억 루블리 받다

사할린주는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주택의 지속적인 감소 조치'라는 새로운 연방단계 프로그램의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해 사할린주 예산의 지출 보상 명목으로 연방 예산이 책정된 유일한 지역이다. 사할린 지역은 향후 이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87억 루블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획의 실행을 신속하게 완료한 러시아 연방 7개 행정자치지역들 중 사할린주는 훨씬 더 많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첫 단계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완료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6천 명 이상, 2021년에는 4천여 명이 주거 여건을 개선했다. 올해는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 5천 명 이상이 새로운 집으로 입주한다. 사할린주 전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주에서는 국가 협력자금 배정으로 노후주택 55만m²에 살고 있는 2만 5천여 명을 이주시켜야 한다. 또한 연방 지원으로 사할린주는 2019년1월1일부터 2022년 3월1일까지 노후주택 8만m² 처리에 따른 조치 실행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보상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사할린주는 주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해 새로 건설된 주택들을 매입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할린과 쿠릴에서는 건축사업이 정체되지 않고 있고, 건설 속도도 높아지고 있어 건설업자들에게 주택들이 제때 공급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 지원금은 이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들을 확보하는 데 배당할 계획이다."라고 알렉세이 콜레와티흐 주 건설부 장관이 말했다.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은 노후주택 회수를 위해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다세대 주택 건설, 중고 아파트 확보 등 다양한 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영주귀국 사업,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수요 조사 및 사증 발급 시작

10월 초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를 통해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 명단은 출장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선정자 명단은 전 러시아 대한민국 공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이번에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1세)가 13명이며, 동반가족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명단에는 총 321명이 올라 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측에 따르면 현재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수요 조사를 하는 중이고 이들에게 사증 발급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영주귀국 관련 설명회는 올해 연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안드레이 하포츠킨, 러시아 연방 평의회 의원으로 선출

지난주에 사할린 주두마 의원 총회에서 러시아 연방 평의회(러시아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안드레이 하포츠킨이 다수가결로 선출되었다. 사할린주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중에서 선정된다.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으로 당선된 안드레이 하포츠킨은 제7대 사할린 주두마 의장이었고 러시아 통합당 사할린지부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주두마 의원 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 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단신

사할린 지역의 산업 인프라 보안 조치 강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는 크렘 대교 테러와 관련해 사할린 지역 반테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산업 기반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사할린주 동력부 대표들과 '사할린스카야 에네르기아', '가스프롬 도비차 셸프 유즈노사할린스크', '가스프롬 트랜스가스 톰스크', '로스넬치 위스토크넬치프로덕트', '사할린에네르고' 주식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에서 발표했다.

사할린주 연료와 에너지 복합시설 소유주들이 대테러 보안을 강화하고 비상사태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한 교육 및 문화 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하부 기관에서는 경고 및 대피 관리시스템 관련 장비 작동, 잠재적 위협에 대한 비상 경보, 비디오 감시 시스템, 주요 건물 및 보안 인접구역의 출입 통제, 출입 및 내부시설 관리 방침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할린주 도서관 75주년 맞이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기념일을 맞이한 가운데 개관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콤포몰레츠' 영화관에서 열렸다. 이에 정부 관계기관, 공공기관, 문화연합회 등의 대표들과 자원봉사자, 도서관 이용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2022년에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은 도시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올랐다. 사할린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상이기도 하다.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은 1947년 사할린주 소비에트 노동자 대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고, 1947년 10월에 독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사할린 및 쿠릴 열도에서 9만 톤 이상의 연어 어획

10월 12일(수)에 열린 사할린주 수산업 협회 회의에서 9만 톤에 달하는 연송어를 어획해 예상 어획량의 73.5%를 차지했다. 이런 지표로 사할린주는 13만4천600톤을 어획한 캄차트카에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위탈리 고밀렙스키, 사할린 주두마 부의장 별세

제8대 사할린 주두마 부의장이며 최고 고령자인 주두마 의원 위탈리 고밀렙스키가 10월 8일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할린의 농업분야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고밀렙스키는 최근까지 몇 대에 걸쳐 사할린 주두마 의원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제8대 사할린 주두마 러시아통합당 소속(비례 투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러시아 및 CIS지역 출신의 동포, 한국 사회에 통합하도록 노력

'러시안 칼리지 부산' 설립자 정영순 교장에 대해 본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 정영순(러시아 명 텐 잔나 블라디미로브나, 50세) 박사는 사할린 출신의 동포 3세대. 한국으로 이민간 지 꽤 오래 된 그녀는 한국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영순 교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지에 소개한 적도 있고 정영순 씨가 직접 신문에 몇 번 기사를 투고한 적도 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최근에 사할린을 방문한 정영순 교장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

- 사할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이민가신 지 15년째네요.

- 네, 14년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었죠. 부모, 친척, 어린 친구들이 사는 사할린을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요.

- 요즘 러시아인 칼리지의 현황은 어떤지요?

- '러시안 칼리지 부산' 우리 학교는 올해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학교 미션을 말하자면 러시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어 보존 및 유지를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통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민자

차세대들에게 사회적으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한국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 '러시안 칼리지 부산'에서 러시아어 수업을 받고 있죠. 우리 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학교의 분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 시험만 통과하면 학력 인정을 받고 러시아 대학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운영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러시아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학교도 운영하는데 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안 칼리지 부산'은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11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일부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의 교육체계는 많이 달라요. 다수 이민자들은 준비없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고, 말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주로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어요. 그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니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할 수 없죠. 학교에 보내면 다 해주는 러시아와 달리 사교육을 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런대로 다니다가 중학교에 가면 사춘기 문제에, 외



국인 왕따 문제 때문에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고, 심지어 자해하는 아이까지 생기는데, 이게 다 한국어를 못하니까 다른 과목도 쫓아갈 수 없어서 성적이 나빠지고, 왕따도 당하니 아웃사이드에, 루저가 되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러시안 칼리지 부산'을 설립했어요.

- 선생님께서는 모스크바대학 아시아·아프리카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셨고, 그리고 모스크바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교수법 복수 전공을 하셨는데 칼리지 외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가르치시나요?

- 네, 현재 경찰대에서 외국어로서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육과정을 경상대 인문대학에서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 정 선생님께서는 대한고려인협회 이사로도 활동하시는데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지요?

-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 및 CIS지역에서 온 동포의 수가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단체의 주요 임무는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동포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려인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인협회의 추천으로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미래교육위원회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임으로 시민사회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정당 민주주의와 결부돼 있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려인 장애아 정착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러시아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많은 행사의 주최자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 생활에는 '동화'하거나 '소외화(사회에서 소외)' 하려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중 언어'와 '다문화주의'가 마음에 듭니

다. 그래서 '러시안 칼리지 부산'이나 대한고려인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문화 및 교육행사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행사들은 한국 사회에 통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거주지로 선택한 요소 중 하나가 딸의 건강이라고 들었습니다.

-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물론 모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거주 국가 선택, 공부할 대학 선택,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직업 선택 등 '국경없는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 평소에 취미는 무엇인지요?

- 지금의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하고, 한국에서는 저의 전문적인 일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을 도울 기회도 있고요. 이것들이 제 삶을 중요한 의미로 채우고 있고, 가족은 모든 면에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를 좋아해서 연구작업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 저 모

모스크브스카야산, 약 200명이 등산

'모스콥스카야 등산로'라는 생태 등산로가 10월 9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200여 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이 이 등산로를 따라 오르기로 했다. 주최 측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으로 가는 길에 안내 게시판을 설치했다.

학생부터 고령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등산에 참여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동반했다.

2021년 사할린의 생태길을 주도한 팀은 '국민건강 연맹' 러시아 공공단체의 지도 아래 사할린주의 중심지에 일련의 생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건강의 산책로'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모스콥스카야 산' 코스는 가장 인기 있는 등산로로서 3km가 조금 넘는 완만한 코스이며, 해발 571m이다. 보통 일년에 약 1,500명의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코스이자, 특히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코스인 만큼 편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이 코스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주 코스가 아닌 길로 돌아가곤 했었다.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등산하길 원하지만 이 길에 안내 표시판이 없다. 모든 사람이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길로 방향을 가르쳐주도록 코스를 표시하고, 1.5km마다 표시를 추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이 기획의 조직자인 안드레이 카프칸이 말했다.

등산은 매달 진행되며, 조직자들은 오후 초해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를 감싸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독특한 자연 방패인 수수나이의 모든 산맥들도 등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поднялись на гору Московску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9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эко-маршрута - «Тропы московской» с восхождением на одноименную гору. Около 200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ешили преодолеть маршрут. Для удобства турист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оснастили тропу к го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баннерами.

Совершить восхождение пришли люди самых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от школьников до пенсионеров. Многие взяли с собой своих четвероногих питомцев.

В 2021 году команда инициативных сахалинцев разработала ряд эколог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га здоровья нации» и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в конкурсе «Маршруты здоровья».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оказался маршрут «Гора Московская» — там довольно плавный подъем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чуть больше трех километров. Сама Московская возвышается на 571 метр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Обустраивать маршрут решили, потому что он пользуетс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 в год им пользуются около 1500 туристов - но раньше он не был безопасным, часто люди сворачивали не туда.

«У людей есть большой запрос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е восхождения. Но по пути нет указателей. Не вс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вигаторами,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маркировать эту тропу, добавить через каждые 1,5 километра знаки,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куда им можно подняться», — поделился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екта Андрей Кафкан.

Восхождения совершаются каждый месяц.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араются охватить все вершины Сусунайского хребта — своеобраз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щи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заслоня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от холодных ветров, дующих со стороны Охотского моря.

사할린 선수들, 러시아 청각 장애인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획득

러시아의 고대 도시인 블라디미르 시가 러시아 청각 장애인 스포츠 선수권대회 진행지가 된 가운데 이에 23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경기에 전국 20개 지역의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포츠 학교의 그레코로만 레슬링부에서 막심 야첸코와 막심 시모넨코(코치: 알렉산드르 와올린) 학생이 경기에 출전했다.

전국 선수권대회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경기로 시작되었다. 이 종목에서 막심 야첸코는 숙련된 경쟁자들을 누르고 2회 우승을 거두어 체급별 130kg 이하에서 3위를 차지했고, 막심 시모넨코는 체급별 97kg 이하 경기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할린 선수들은 자유형 레슬링에 출전하여 막심 야첸코는 은메달(체급별 125kg 이하), 막심 시모넨코는 동메달

(체급별 97kg 이하)을 따냈다.

명성 높은 대회에 출전한 사할린 선수들을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사할린주 청각 장애인 스포츠 연맹(회장 김 제니스)'이 협력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борцы завоевали медали на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Древнерусский город Владимир стал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по спорту глухих (дисциплина "спортивная борьба"). На ковер вышли юниоры не старше 23 лет.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десятков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реди них бы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ксим Яшенко и Максим Симоненко (тренер Александр Ваулин).

Первенство страны началось с состязаний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В этой дисциплине Максим Яшенко одержал две победы над опытными соперниками, что позволило ему занять третье место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130 килограммов. А Максим Симоненко показал пятый результат в весе до 97 килограммов.

Успешнее выступили островитяне в вольной борьбе. Здесь Максим Яшенко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весовая категория до 125 килограммов), а Максим Симоненко — бронзовым (до 97 килограммов).

Поездка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эти прести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содействии РОО "Федерации спорта глухи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зидент — Денис Ки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у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하루 보이스 피싱 피해액 450만 루블리 이상

사할린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기꾼들의 울무에 걸려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3명이 하루에 450만 루블리 이상을 빼앗겼다. 사건 발생의 자세한 내용을 사할린주 내무국 홍보실에서 알리면서 범죄 사건들이 신고됐다.

3명의 주민은 돈을 갈취해 간 신원불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고소를 했다. 첫째 사건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서 8만 루블리가 빠져나갔다. 이는 은행직원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려고 한다고 전한 후, 피해 여성에게 그의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하여 여성이 그대로 하자 피해를 입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 실무 학술회 최종 선언문

장소: 상트페테르부르크

날짜: 2022년 10월 1일

우리는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이며 2022년 0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원탁회의와 그후2022년 10월 01일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국제 실무 학회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사할린 동포»란 1945년 0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일제 감정기 때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그의 후손을 말합니다.

2. 사할린 동포들은 수십 년 동안 조국 귀국이란 기초적 권리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권, 자유이동권, 또는 거주지, 전공 학과, 기술 선택권 등 기본 시민권을 제한당한 역사적 특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사할린 한인을 특정공동체로 인정해주길 당부합니다.

3.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년 04월 30일)에 의거 실시되는 영주 귀국 대상자 범위 확장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1세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의 배우자에 한하는 «동반가족»에는 다른 세대 후손을 포함해야 합니다.

3.2.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 후 모국 사회에 보다 잘 정착하기 위해 연령에 준하는 지원 방법 (프로그램) 다양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3. 사할린동포들에게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없이 국적 회복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리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4. 사할린동포들이 돌려받지 못했던 우편저금을 보상받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조속히 접촉하여 국가 차원의 협상 및 수령하기를 요구합니다.

3.5. 강제 동원 피해자 진상 규명과 보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추진 위원회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4. 사할린동포들은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5. 우리는 전반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를 받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단합하여 사할린 한인의 명예와 권리 회복 또는 보호를 위해 모두 뭉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연방, 대한민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선언합니다.

주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 최영구 회장
하디나 사무 국장

사할린에서 채소 수확이 한창

사할린주에서 '보르쉬 식자재' 채소 수확이 한창이다. 농산업체들이 비트, 당근, 양배추를 절반 이상 수확했다. 총 22,400여 개의 채소 농경지에서 수확이 이뤄질 전망이며, 뿌리채소의 수확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당근 수확은 사할린에서 이미 계획의 50% 정도인 3천 5백 톤을 수확했다.

채소 수확과 저장 보관에 압도적으로 앞서는 '소콜롭스키'주식회사(농장)는 1헥타르당 7만kg의 수확량을 보였고, '자레츠노예' 국영농장도 수확량이 우수한 1헥타르당 6만8천600kg을 수확, '유즈노사할린스키' 국영농장도 1헥타르당 5만2천300kg을 수확했다. 비트는 75% 이상 수확됐으며, 감자는 거의 모두 수확된 가운데

4만 톤 이상이 저장되었다. 감자 수확량은 적어도 4만5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농산업체들은 가을양배추 품종을 활발하게 수확하기 시작하여 '썬플리츠니' 국영농장은 1헥타르당 6만kg의 수확량을 보였다. 사할린의 농작물 경영자들에게는 우량종 씨감자 구입을 비롯한 우량종 사료용 풀, 농경지 토양의 비옥도 향상, 기계 및 기술적 현대화 작업, 광물 및 유기비료 도입 등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상환한다. 올해는 미네랄 비료 공급과 구매에 투자금도 30%에서 50%로 증가됐다.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농작물 재배 하위 부문 지원을 위해 연방과 지역 예산에서 2억4천 480만 루블리가 배당됐다고 주 정부가 전했다.

전 세계 韓商, 울산에 모인다! 제20차 세계한상대회, 11월 1일~3일 울산시 열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슬로건,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

한상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한상
정체성 확립 중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민족 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제20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약 40개국 2,0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참가하고, 총 20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 기업상담회와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세계한상대회 개최 20주년을 맞아 '한상'의 정체성인 기업가·개척자 정신을

재조명하고, 참가자들간의 한상 네트워킹 구축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올해는 20년 한상대회의 역사에 걸맞게 울산을 포함한 전국 유망 기업과 한상경제인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대회를 통해 한상을 통한 해외 진출, 국내 청년의 일자리 창출, 모국 투자 유치 등 울산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지난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아래에 최경옥 교수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최경옥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은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역임

동원 등으로'라고 하여 반드시 강제동원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반드시 강제동원으로만 사할린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고 노동력 부족으로, 또는 임금이 좋아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간 노동자들도 있었으나, 이들이 그곳에서 노동계약이 끝나고 강제동원되기도 하였다. 둘째, 사할린 동포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이라고 하여 그 날짜를 1945년 8월 15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혈통주의와는 무관하게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최근에 영주귀국자들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까지만'으로 제시한 안을 한국 정부(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수락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러시아하고도 영주귀국 대상자 선정을 협의 할 당시에,'1945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배우자 또는 장애인 자녀'로 한정하여 협상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가 사할린 동포들에게 국적 문제와 이산의 아픔을 한번 더 생생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날짜 제한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라도 사할린에 있는 한인들을 일본 또는 한국으로 귀환시켰어야 하나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늦게서야 겨우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가 아닌 적십자사의 이름으로 귀국 지원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최저한으로 면피하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수정하여 그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있던 그 1세대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그 특수성에 기인하여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원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할린 한인들의 70여년 넘는 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일본의 책임과는 별개로 혈통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 국적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왜 사할린 한인 1세대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강제동원 등'의 의미

'사할린 동포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강제동원'의 범위

'사할린 동포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강제동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당시 사할린 등으로 노무동원은 3단계로 보고 있다. 첫째, 1942년 2월까지의 모집동원, 예를 들면, 1939년 9월 2일, 「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과 「조선인 노동자 이주에 관한 사무취급절차」를 제정하여 조선인 노동자를 집단 모집하였다.

둘째, 1942년 2월부터 1944년 9월까지의 관알선에 의한 동원, 셋째, 1944년 9월부터 강제징용에 의한 동원이다.

(다음호 계속)

I. 들어가며

II. 사할린 한인이란?

III.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1. 누가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2.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

(1) 국적확인과 국적판정과의 차이

(2) 국적회복이란?

(3) 특별귀화 요건

(4) 복수국적 협약 체결 필요성

IV.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1. 영주귀국 대상의 범위

2. 사할린 동포 지원의 범위

V. 결어

I. 들어가며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현재까지도 사할린 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할 수 없는 잔류 동포들과 그 후손들은 여전히 한국 국적의 자동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한국 정부는 당사국과의 외교문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동포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아직도 미온적인 상황이다. 여기에서 '사할린 한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어느 시기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들과 대한민국 국적 회복, 한국으로의 귀화, 사할린 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할린 한인이란?

1. 사할린으로의 이주

우선 왜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갔느냐 하는 배경으로는 첫째, 1910년 일본과의 한일합방 이후 농민들이 일본이나 다른 도시로 식량을 찾아서 이주하였으며, 둘째, 2차대전 중에는 일본인 남자들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조선인을 노동자로 연행하였으며, 셋째, 1937년 시작된 일중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 전쟁'등으로 일본인 남자가 부족하여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연행되어 갔다.

2. '사할린 한인'이란

여기에서'사할린 한인'에 관하여,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사할린 동포법':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2021. 1. 1. 시행)에서 그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제2조(정의)에서,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3. 왜'1945년 8월 15일까지'일까?

(1)'사할린 동포법' 제1조와 제2조 1항의 의미

위 '사할린 동포법' 제1조와 제2조 1항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사할린 동포'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크게 그 부분을 좀 더 분석하면,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첫째, '강제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о итог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 октября 2022 г.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по итогам обсуждения в рамках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с 29 по 30 сентября 2022 г. и рабо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1 октября 2022 г.), заявляем следующее:

1.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являются корейцы, переех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и родившиес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и их потомки.

2.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язана призна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обой общностью,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й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илетий были лишены базового права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свою Родину и претерпевали значите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право на гражданство, передвижение, выбор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учебы и профессии.

3.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ринять следующие меры:

3.1.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а лиц для учас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 30.04.2020 г., включение в программу всех потомков

3.2.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в том числе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учение профессии и пр.)

3.3.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ава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з отказа от гражданства РФ

3.4.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опрос о возврате почтовых сбере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чего создать Фонд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3.5. Восстановить Комитет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жертв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вербовки и выплате пособия.

4. Поддержать законопроект депута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Кореи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г-на Ли Мен Су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5. Мы намерены всесторонне 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ести работу в целях координации решения вышеуказанных задач, для чего инициируем соз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лиц к объединению наших голосов с единственной целью: восстанов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защитить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обращаемся с данным обращением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Цой Ен Гу,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КОР"
Ха Дина,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Я за "билингвальность" и "поликультурность"

Основатель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Жанна Тен, бывшая сахалинка, не первый раз в гостях у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ее приездом на Сахалин, редакция решила пообщаться с Жанной на самые разные темы.

— Жанна, рады вновь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на Сахалине. Знаю, что Вы с семьей живет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же почти 15 лет.

— Взаимно.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14 лет назад я эмигрировала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в Корею, но каждый раз с большим трепетом возвращаюсь в родные края, где живут мои родите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и друзья детства.

—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как сейчас живет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 Нашей школе —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5 лет. Ес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миссия школы была в сохранении родного языка через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обучения по российски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то сейчас мы больше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помощь в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для наших учеников,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тупления в хорошие ВУЗы Коре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социальный лифт для будущего поколения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ю.

— А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ведется по каким программам?

— Обучение ведется по российским программам, но с 8 класса можно начать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интенсивном режиме с русскоязыч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А для учеников младшего звен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аться в первую смену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Я понимаю ваше недоумение, зачем так усложнять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Вс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огда мы привозим детей в Корею в младшем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то их языковая адаптация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проходит безболезненно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гладко: дети быстро учат язык, их корейские ровесники относятся к ним хорошо. То есть у них есть вполне хорошие шансы в будущем для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подростках, то тут ситуация ослож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особенностями их «трудного периода», но и сформирован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к освоени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заключаются в том, чт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ровн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академ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уходит около 4-5 лет. В Корею еще не разработаны эффективные программы адаптации для де-



тей мигрантов в школе в силу отсутствия большого опыта. А в нашей школе дети обучаются по знакомым и понятным программам как ребенку, так и родителю и параллельно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необходимый им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Хотелось бы обратиться к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переезд в Корею с детьми,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разработать стратегию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своих детей. От этого зависит, приобретет ли ваш ребенок вдвое больше на новом месте или лишится всякого шанса на успех в будущем.

Узнать о нашей школе можно на сайте www.rc-busan.ru

— Вы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изнанный профессор в Корею, помимо гимназии где Вы преподаете? Помогает ли Вам ваш опыт преподавания в МГУ?

— Я защитила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по корей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и работала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при МГУ до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но в Корею я востребована как преподаватель «Русского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в Высшей школе полиции (경찰대) и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преподавала эту дисциплин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ёнсан (경상대).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очень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ы и трудолюбивы, что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для изучения люб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 Вы ведете огром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Являетесь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миссия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В Корею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100.000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Основной миссией организации является защита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авовой статус которых носит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А также помощь в интеграц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и позитивного имиджа коре-сарам в Корею.

— Вы являетесь вдохновителе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но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ус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Можно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е.

— В мигрантской жизни есть большой соблазн «ассимилироваться» или «маргинализироваться». Ни та, ни другая крайность мне не по душе. Я всегда за «билингвальность» и «поликультурность» в современное время. Поэтому все культурные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мы инициируем и проводим нашей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ей в Пусане, также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де я служу, нацелены и на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и на помощь в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 Что считаете самым важным в обучении и воспитании детей? Слышала, чт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выбора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в РК стало здоровье дочери.

— У меня двое детей, и, конечно, как и любой маме, мне хотелось дать им обоим возможность выбора в «мире без границ» — выбора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выб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для обучения, выбора професси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 Чем Вам нравится заниматься? Есть ли какие-то увлечения по жизни?

— У меня есть все, что делает меня счастливой — я занимаюсь любимым делом и м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труд в Корею оценивается по достоинству, у меня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могать людям, что наполняет мою жизнь важным смыслом, моя семья поддерживает меня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И у меня еще остается время дл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амообразования.

Беседовала Виктория Б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18 октября в 18.30
на встречу с основателем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Жанной Владимировной ТЕН

Тема встречи:
«Корея: жизнь глаза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
Место встреч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конференц-зал, 9 этаж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К «Гагарин».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ткрыта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К будет сложно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ухудшится, учитывая множество прогнозов о замедлении темпов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Чху Гён Хо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остоявшейся 11 октября в Нью-Йорк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реальный рост экономик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ет ниже прогноз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ставляющих 2,5%. Чху Гён Хо описал нынешню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как очень сложную, учитывая такие отрицательные факторы как дестабилизация финансового и валютного рынков. Однако пока дело не дошло до нехватки валюты и финансовых резервов, как это было во время предыдущих кризис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вероятность нового валютного кризиса крайне ма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ак отметил Чху Гён Хо,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 за развитием ситуации. Вице-премьер прибыл в США для участия в заседании министров финансов и управляющих центральными банками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с 12 по 14 октября. 14 октября Чху Гён Хо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алютно-финансового комитета (IMFC).

В РК началась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12 октября в РК началась бесплатная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граждан старше 75 лет. Для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от 70 до 74 лет вакцинация начнётся 17 октября, от 65 до 69 лет – 20 октября. Пожилые граждане смогут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до конца года. Такой график прививок представ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сентябре началась бесплатная вакцинация от гриппа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6 месяцев до 12 лет и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Вакцинация данных категорий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одлится по 30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акцинацию можно пройт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ах и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Граждане, не входящие в группу риска, могут привиться от гриппа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Иностранцы активно продают а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ентябре иностранцы продали акции компан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биржах РК, на сумму 2 трлн 330 млрд вон (1 млрд 630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рядка 78% продаж пришлось на рынок ценных бумаг KOSPI, остальные – на рынок акци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компаний KOSDAQ.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2 октября в комитете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РК. Отрица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на рынке продолжалась с начала года по июнь, после чего в июле иностранцы вновь проявили интерес к приобретению акций.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сентября они владели ценными бумагами компани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бирже, на сумму 781 трлн 400 млрд вон (547 млрд долларов), включая акции компаний и облигации.

Молодые южнокорейцы любят читать романы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2022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молодёжной книги»,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РК провели исследование читательских предпочтений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39 лет. Анализ данных по выдаче книг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собранных при помощи платформы data4library.kr, показал, что наибольше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молодёжи пользуются романы. На них приходится 68% книг,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запрашиваемых читателя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В то же время читатели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39 лет помим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также часто берут в библиотеке книги по бизнесу и финансам,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а также сборниками эссе. Список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книг среди абонентов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возглавил сборник научной фантастики «Если мы не можем двигаться со скоростью света» писателя Ким Чо Ёпа, а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39 лет – книга «Как тебе сказать» О Ын Ёна и Чха Сан Ми. Из не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и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у молодых читателей до 30 лет пользуются книги по бизнесу,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ю и информатике, социологии. Предпочтения читателей старше 30 лет также включают книги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му и началь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финансам и продуктам питания.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случаев многоплодной беременно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К родились 264 тыс. младенцев. 5,2% из них составили двойняшки, а 0,2% - тройняшк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9 авгус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Число случаев многоплодной беременности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В 1990-х годах на их долю приходилось чуть более 1% беременностей. Медики связывают рост с увеличением возраста первых родов и применением в этой связи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яйцеклеток, что повыш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многоплод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рожениц с многоплодием составил 34,8 года. Среди рожениц в возрасте моложе 24 лет на многоплодие приходится 2,1%,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34 лет - 4,7%, от 35 до 39 лет – 8,1% беременностей.

(RKI)

О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цензия на новую книгу Германа Кима

Появления этой книги профессора Германа Кима ждали. Она была анонсирована в Facebook, там же с будущими читателями обсуждался макет обложки, потом прошел сигнал, что книга завершена и передана в печать. И вот, труд, над которым автор работал многие годы, собирая по крупицам сведения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обрабатывая и систематизируя обширный массив данных, завершен.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Делового клуб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Кан Игоря Владимировича книга издана тиражом 500 экземпляров, и уже поступила в продажу.

Книга имеет необычное построение. Статьи о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занимающие главное и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в книге, сведены в раздел, который автор назвал и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как «Путеводитель». Та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 очень удачный способ представить читателю обширную справ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1864-1937 годах. Кроме того, автор словно приглашает нас совершить экскурс в историю предков и призвать в помощь свою генетическую память.

Путеводитель предваряют введение и научная часть, включающая статьи ученых корееведов: профессора Росса Кинга «Благословенное – корейское поселение на Амуре, 1871 – 1937» и профессора Германа Кима «Синханчхон-прототип «Кориатауна» в России» статья об известном районе Владивостока.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и введении автор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 раскрывает многосложность и глубину темы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е случайно столь обширен (более 160 ссылок)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ой и рекомендуемой литературы. Этнография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ого периода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книге всесторонне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аспекте и такой широко охватный взгляд ученого вместе с обрывками наших знаний из печати, рассказов родителей и дедов, воссоздаёт историю и оживляют то время, картины прошлого зримо встают пред взором и оседают в глубинах памяти.

Изложенный материал собран на основ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описаний в донесениях военных, отчетах и докладах чиновников разного ранга, рассказах извест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и краеведов, исследований многих поколений ученых в течение полутора столетий. Всё это проглядывается в каждой большой или малой статье путеводите-

ля, коих в книг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шести сотен.

История появления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Российские пределы в общих чертах известна многим, но при глубоком изучении этой темы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асколько насыщенной истор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была их жизнь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емидесяти трёх лет, вплоть до 1937 года, когда всех поголовно и отовсюду выселили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Первые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появились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в 1863-1864 году, вскоре после присоединения по Айгунскому (1857) и Пекинскому договору (1860) земель между Амуром, Уссури и Японским морем. Выходит, наши предки наряду с военными и переселенцами с Приамурья и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освоении новых россий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На картах видно, как обширно расселялись корейцы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краю и каждая пядь той земли обильно полита потом и кровью наших предков.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их властей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 целом была вполне интересовавшейся. Вот цитата из отчета штабс-капитана Генштаба П.А. Гельмерсена 1865 года, который познакомившись с жизнью и бытом обит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и Тизинхэ, писал: «Я считаю поселение их (корейцев) в наших пределах делом не только полезным, но и существенно важным для будущности этого края, богатого всем, кроме рабочих рук... А это едва ли не главное, потому что теперь вся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 этом кра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едостатком рук для его выполнения.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Георгий КАН

Приостановка работы в России принесла Hyundai миллиардные убытки

Сеул, 9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рошло полгода с тех пор, как Hyundai Motor Group приостановила работу своего завода в России из-за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 логистикой, не имея четкого видения прорыв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глобальные конкуренты уже ушли с рынка. Но эксперты рынка говорят, что простой уход Hyundai из России не является решением проблемы из-за огромных инвестиций и значительной доли рынка.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недавн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Hyundai Motor Group, компания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sia в августе отгрузила ноль автомобил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17 649 единицами, отгруженными в январе. Когда завод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боту в марте из-за нехватки поставок, их количество резко сократилось до 3 708 единиц с 17 402 в феврал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Hyundai Motor продала в России 171 811 автомобилей, а ее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Kia продала чуть больше — 205 801 единиц.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уэт занял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на рынке с совокупной долей 23 процента, уступая французской Renault.

Поскольку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приходится не так уж и мало — 6 процентов мировых продаж Hyundai Motor Group —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сделал смелые инвестиции, купив старый завод General Motor за 5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35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США) в 2020 году и проведя масштаб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на заводе Kia. В 2019 году компания объявила, что к 2027 году инвестирует в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64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там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С тех пор ситуация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когда был объявлен план), и сейчас трудно применить такой план, поскольку ситуация не нормализуется», — сказал газете Korea Herald инсайдер отрасли, добавив, что конкретного плана возобновления нет.

План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я по продвигению нового K9 и производству нового Sportage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вернулся на круги своя.

«Но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мы навсегда отменяем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продаж и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буду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 мы сделали инвестиции, исходя из потенциала рынка», — сказал он.

Приостановка работы Hyundai в России также создает эффект домино для ее филиалов и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фирм там.

Последствия ощутили на себе не только крупные дочерние компании Hyundai Mobis и Hyundai Wia, которые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получают 53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чистой прибыли с Hyundai и Kia ежегодно, но и поставщики мелких автозапчастей, такие как Sungwoo Hitech и поставщик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сидений Daewon Industry,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Hyundai Wia, которая производит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вигатели,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прекратить работу всего через пя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двигателей.

Аналитики рынка считают,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шесть месяцев после приостановки работы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потерял не менее 3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убыток Hyundai Motor в размере не менее 2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и Kia в размере 25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 сказал исследователь Samsung Securities Лим Ын Ен.

Отраслевые эксперты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Hyundai Motor Group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должна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прежде чем увидеть рост убытков.

«Hyundai Motor Group следует начать искать, когда будет лучшее время для ухода с рынка, путем расчета прибылей и убытков», — сказал профессор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нжене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Дэлим Ким Пил Су.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Renault Group решила продать Renault Russia и свою 67,7-процентную долю в крупнейшем российском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е Автоваз. Автопроизводитель Mazda из Хиросимы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ухода из России, в то время как Toyota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объявила, что навсегда прекратит производ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в Росс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гаре сбор овощей «борщевого набора»

Аграрии убрали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свёклы, моркови и капусты. Всего ожидается урожай – 22,4 тысячи овощей откормленного грунта.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уборку корнеплодов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убрали более 3,5 тысяч тонн моркови,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почти 50% от плана.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по сбору и закладке на хранение является АО «Соколовский» – 70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Хорошая урожайность у совхоза «Заречное» – 686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а также у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 523 центнера с гектара.

– Мы ежегодно выращиваем несколько сортов моркови, которые пригодны к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долго хранятся и обладают хорошими вкусовыми качествам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второй раз высадили «Корлан». Это весьма крупноплодный, сочный и вкусный сорт,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агроном совхо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Анастасия Семакина.

Также собрано более 75% свёклы и убран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картофель – на хранение заложено более 40 тысяч тонн «второго хлеба». Всего ожидается собрать не менее 45 тысяч тонн картофеля.

Некоторые хозяйства уже начали активно убирать капусту поздних сортов. Сегодня самую высокую урожайность показывает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 свыше 60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Отметим, чт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 устойчивой поддержк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е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купе с правильным применением агротехнологий дают накоп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и, как результат, хороший валовый сбор. В этом году произошло увеличение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планов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бору картофеля и овощей,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 мех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Екатерина Сливкина.

Островным растениеводам возмещается часть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элитных семян картофеля и семян трав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повышение плодородия почв на земля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техническую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а также на внес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и органических удобрений.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были увеличены ставк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 доставку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 с 30% до 50%. В целом в 2022 году на поддержку подотрасли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ов выделено 244,8 млн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нкологическом диспансере установили маммограф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еред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на самой ранней стадии обнаруживать рак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Эта патология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от которых чаще всего страдают женщины. Маммограф поступил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борьбе с онкозаболевания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Трехмер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которое дает новый аппарат, показывает молочную железу в нескольких проекциях. От дет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е укроется ни один миллиметр ткани. Точная визуализация позволяет обнаружить все патологически измененные участки.

– Движение трубки происходит под угл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формируется трехмерная визуализация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в том числе с функцией биопсии. Специалист может во врем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извести забор ткани для гистологии,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рентгенодиагностики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Денис Вардаков.

Кроме улучшен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аппаратом, новый маммограф дает меньшую лучевую нагрузку на организм. За одну рабочую смен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25 исследований. Врачи рекомендуют проходить маммографию раз в два года всем женщинам в возрасте от 40 л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жегодно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около 250 новых заболеваний раком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Раннее выявление позволяет вылечить болезнь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 Рак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 одна из самы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опухолей у женщин. Пройти ис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в рамках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йонах. В удаленных селах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езды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оснащенных маммографами. Не нуж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эту возможность,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х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раз в два год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Эдуард Винарский.

На этой неделе инженеры проводят пуско-наладку перед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 17 октября на нем начн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й.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областной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приобретен УЗИ-аппарат экспертного класса.

Задачу по внедре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оставил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усиле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лет установили новейший компью-

терный томограф и аппарат МРТ, производи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и замена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еверные и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завершили ремонт по проекту «1000 дворов»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15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Охин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Тымовском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ах.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дворов увидели более 1000 жителей.

Всего по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уют 84 двора с площадью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более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хватить работами 60 дворов, но благодаря экономии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программу расширили.

– Двор давно стал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отдыха и общения людей, а для детей – это еще и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игр. И наша задача создать для них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во дворах велись согласно срокам и, в итоге, мы успели завершить их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погоды. Это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всей команды совместно с жителям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роекты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обсуждались с жителями. Программа «1000 дворов» предполагает комплекс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ое включает асфальтирование проездов и тротуаров, установку скамеек и урн, ремонт наружного освещения,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и установку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1000 дворов»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этом году инициировал вице-премьер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2 году утвердили лимит в размере 418 млн рублей.

Отметим, что на островах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еще 86 дворов.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ется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В этом году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987 дворов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 процентов сократились вредные выбросы в атмосферу за три год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6 и 7 ок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заработала первая клима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оссии. С 1 сентября вступил в силу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пуске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дост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В условиях мощ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западных странах, когда Европа снова начала добывать уголь, может слож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весь мир отказался от идеи борьбы с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и сн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го следа. Но это не так. Потому что путь к сокращению углеродного следа – это путь к энергосбережению. Для нас, как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следствия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несут серьезный риск, и мы острее, чем многие другие, ощущаем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мер по сохранению уникальной природы островов. Это значимо для жител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глобальна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нновации», «энергoeffективность» звучат для обычного человека несколько абстрактно. Но «чистый воздух», «чистая вода», «комфортная среда» – вполне конкретно и ощутимо. Именно на это сейчас и направлена наша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нижение негативного влия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на природу –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задач,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артия «Единая Россия» как главный проводник иде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уделяет вопросам экологии первостепенное вним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реализацию федеральных партийных проектов.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креплен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 сторонниками разум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 Закрепление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кращения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позволит России эффективно выполня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глаш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 теперь должны публиковать в открытых источниках объемы выбросов, которые они производят. Активные граждане, экологи, эксперт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достовер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почв, качестве питьевой воды и воздуха, радиационном фоне и других важных показателях.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РФ обязыв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ов принимать всеобъемлющие меры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ных богатств и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снижения нега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ыбросы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в воздух снизились на 20 процентов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два года почти в пять раз сократ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пы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н от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Объем образования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снизился на 33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20 годом. Снизился сброс сточных вод в островные водоемы.

Газификация –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путей для снижения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в атмосферу. Сегодня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превышает 50 процентов, хотя ещ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14 процентов.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в 2021 и 2022 годах перевели 11 котельных, до конца 2025-го будет заменено 145.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ют 100 электрозаправок. Более 3600 машин работают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 топливе. Модернизируют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В этом году приобретут около 150 автобусов среднего и большого класса на газомоторном топлив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с тем, что рынок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уже стартовал. Проведена первая сделк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по проекту замены дизельной энергетики на солнечную.

Климатические проекты обладают больш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Губернатор пригласил компании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геотермальной, ветряной, солнечной, водородной. Регион также открыт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переработки отходов, энергосервисов, зеле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ых микрорайонов.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бизнес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в ТОП-5 регионов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рейтинге.

Студен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ступили к обучению на Сахалине

Шестой набор студентов главного медвуз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был на остров для изучения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Удаленная кафедр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в России. Молодые люди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но и решают вопрос буду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Около 60 человек, за шесть лет прошедших обучение на удаленной кафедре ТГМУ, успешно закончили вуз и стали диплом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ервый набор состоялся в начале 2016 год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бучение на кафедре проходят студенты 5-6 кур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них организуется полный цикл лекций и пр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чебным планом и действующ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Такой формат обучения позволяет студентам погрузиться в практическ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выбором будущей специализации и решить для себя вопро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Большая часть студентов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репиться на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а в области решается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прошлых лет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базовая кафедра был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После перерыва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и 12 студентов-шестикурсников. Обуч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ится два семестр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базой для них являет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Лекции чита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дицинского вуза, которы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летают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ейчас у ребят цикл занятий по травматологии, сразу после лекций студенты отправляются в отделение.

– Сейчас мы преподаем травматологию и ортопедию. Курс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дней лекций. Сегодня начинаются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ид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еще шести дней. Студенты смотрят больных, составляют историю болезни, определяют тактику лечения, потом мы вместе анализируем, – рассказал Евгений Костев,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хирургии ТГМУ.

Студентка Дарья Еремишина планирует стать врачом-рентгенологом.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а девушка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Я род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тоже хочу здесь. В семье есть медработники, я знаю, что это за профессия. Обучение в медицинском вузе укрепило мое желание стать врачом, а базовая кафедра дает наилуч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знаний, – поделилась Дарья.

Большая часть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кончивших базовую кафедру за годы ее существования, трудоустроились в областные поликлиники.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больш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в регион,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сего в 2022 году в различ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были работать 452 врач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12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개막'

전세계 32개 도시에서 40여명의 한인 언론인 참석

재외동포언론, 팬데믹 언론의 길을 묻다.

'코로나 팬데믹 시시대 정보 왜곡과 재외동포언론의 역할, 주제로 밀도높은 논의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가 주최하는 '2022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10월 11일, 코리아나 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막했다. / 사진 '【한국(서울)=세언협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전 세계 재외동포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 이하 세언협)가 10월 11일(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의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했다.

11일 17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개막식은 재외 한인 언론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동포 언론인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개국 32개 도시에서 40여 명의 한인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 연합뉴스 성기흥 사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정부위원회 양정숙 의원, 정영수 CJ글로벌경영고문, 세계한인네트워크 김영근 회장,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대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전세계 한인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김명곤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보 왜곡 또는 정보 무질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계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등 '가짜 뉴스 팬데믹'을 맞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외 언론은 지구촌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정보 왜곡 사태를 가장 생생하게 목격해온 장본인입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코로나 정보 왜곡 사태를 적시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자기성찰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성기흥 연합뉴스 사장은 축사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의 삶을 소개하고 고국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애국심과 함께 굳건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로, 그러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저마다 역할에 충실한 여러분 덕분에 모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연합뉴스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동포 언론과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위원장 임종성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서 재외동포들의 알권리를 위해 해외에서 열심히 펜으로 써우고 있는 분들이며,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저 역시도 펜은 칼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

는만큼 재외동포 언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위원회 국회의원 양정숙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가 탈세계화가 되고 보호무역주의 등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50만 해외동포와 모국을 연결해주는 세계한인언론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문제는가 경제양국화인데, 그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치의식의 양국화이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언론의 정론직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되돌아 보는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를 넘는 과정에 재외동포가 있는 193개 국가 중 16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아르헨티나에 하나밖에 없던 한인 언론이 최근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해외 한인 언론인들의 역할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적 지원대책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해 재외언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위드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한인언론인들은 "재외동포언론, 팬데믹 언론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시대 정보 왜곡과 재외동포언론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경북 영주시, 충북 단양군을 방문해 문화유적과 지역축제를 취재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고국의 맛과 멋을 두루 경험하고 지자체와 세계 한인 언론매체와의 공동사업과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체부, 외교부,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 한국언론학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재외동포포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유엔피스코, 글로벌장보고재단,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등이 후원한다.

한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세계 40여 개국 180여 개 동포 매체가 회원사로 가입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체다. 2002년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서울)=세언협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조현용 교수의 '우리말 소망',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재외동포신문에 칼럼 '우리말로 깨닫다'를 연재하고 있는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의〈우리말 소망〉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수필분야 도서에 선정됐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우수 문학 도서를 소설, 수필, 시, 아동/청소년, 평론, 희곡 등 여섯 개의 분야로 나눠 선정·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33종의 도서가 접수됐으며, 그중 190종이 선정됐다.

〈우리말 소망〉은 우리말이 담고 있는 소망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주문을 외다 ▲감정이입 ▲마음 치유 ▲무언가를 향한 기도 ▲어떤 가치 등 5장으로 구성된 책에서 건강, 주문을 외다, 기지개를 켜다, 까짓것, 실수, 망설임, 악연, 억울, 평가, 치유, 만남, 일부러, 어른, 부리다 등의 우리말이 담고 있는 소망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책은 우리말 어휘학자인 조 교수가 안내하는 '긍정'과 '행복'으로 이끄는 우리말 세상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곳이라는 진리를 전해주는 〈우리말 선물〉, 살면서 혹여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말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라는 〈우리말 지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말의 기본 규칙과 예외, 탄생 배경을 다룬 〈우리말 교실〉에 이은 책이다.



조현용 경희대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의 '우리말 소망'(2022, 마리북스) 표지

(출처: 재외동포신문)

세계한인여성협회 주최 '제7차 세계한인여성대회' 열려

10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막식
오후엔 인천서 환영식 개최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세계한인여성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은 ▲개회 기도

(이선구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 ▲축사 낭송(공선옥 시인) ▲개회 선언(김소희 세계한인여성협회 명예총재) ▲국민의례 ▲인사말(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내빈 축사 ▲세계한인여성협회 소개 영상 상영 ▲심포지엄 ▲한인단체 사례발표 ▲세계한인문화복지재단 K-HOME&LIFE Org 창립보고 ▲비전선포식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효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해외 한인차세대 청년들을 인재로 육성하고, 재외한인 1세대들의 행복한 여생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세계한인문화복지재단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조명희 국회의원원은 환영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성), 김성옥 세계한인여성협회 창립고문, 피터 게데 박사는 축사로 행사를 축하했다.

심포지엄은 이준근 박사(정치학)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미래', 금종례 DBS동아방송 회장은 '한국의 인구절벽시대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해외 한인단체 사례 발표시간에는 김상록 독일 아헨한인회장과 심동간 파독광부기념회관 관장이 각 단체의 활동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모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고령의 재외동포들의 모국 정착 등 여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할 '세계한인문화복지재단(K-Home&Liftr)' 출범식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천 라마다호텔로 장소를 이동해 환영식 등으로 이틀간의 행사를 이어간다.

세계한인여성협회는 2013년 10월 '세계한인여성회장 협의회'로 출범, 2019년 단체명을 '세계한인여성협회'로 바꾸고 '400만 세계 한인 여성들 하나되어 대한민국으로'를 비전으로 ▲세계의 여성으로서의 위상과 재외한인여성의 역할 확대 ▲무의탁 무연고 동포 기초생활안정 프로그램 마련 ▲세계한인 여성 전문인력 육성 ▲해외진출 희망 개인, 기업 대상 현지 적응화 교육 ▲세계한인센터 건립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 세계화 협력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한인여성협회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세계한인여성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둘째 사건은 규모가 커서 놀랍다. 45세의 피해 남성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로 3백50만 루블리를 잃었다. 신원불명의 남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은행보안 서비스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해커가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렸다. 그래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는 전화한 신원불명의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중에 3번에 걸쳐 신용카드로 대출하여, 강요된 계좌로 송금했다.

셋째 피해자는 달네에 마을의 여성 주민이다. 이 여성도 은행 직원이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위임장을 가진 여성이 은행에 와서 피해자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피해 여성에게 형사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속이려한다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성은 은행 온라인 앱을 통해 90만 루블리를 대출을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모든 사기 사건의 사실에 따라 범죄 사건들로 신고됐다.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дали мошенникам более 4,5 млн рублей за сутки

Сахалинцы продолжают попадаться на удочки аферистов. На этот раз тро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а сутки лишились более 4,5 млн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происшествий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Все трое островитян обратились с заявлениями о хищении неизвестными их сбережений.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потерпевшая лишилась 8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й позвонил лжесотрудник банка и сообщил, что с ее счета пытались снять деньги. Аноним уговорил женщину последовать его инструкциям, что она и сделала.

Следующий случай поражает своим масштабом. 45-летний мужчина потерял более 3,5 млн рублей из-за звонка афериста, представившегося полицейским. Неизвестный сообщил потерпевшему, что от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пришло заявление о попытке хакерско-мошеннической кражи денег со счета сахалинца.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это, островитянину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следовать указаниям аноним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оказались оформление трех кредитов и перевод средств на продиктованный номер.

Третьей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оказа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Дальнего, которой также позвонил лжесотрудник банка. Он заявил, что неизвестная женщина с доверенностью пришла в банк и пыталась снять деньги со счета островитянки. Затем потерпевшей позвонил мужчина, представившийся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м. Он сообщил, что заявительницу пытаются обмануть мошенники и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необходимо действовать по его инструкция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женщина оформила кредит на сумму 9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онлайн-приложении банка и разными суммами через банкомат на различные номера перевела деньги. По всем фактам мошенничества возбуждены уголовные дела.

(Сахалин.ру, анонимные материалы)

인천에 계시는 김 세이코 어르신께 드리는 축하문

생신축하드립니다.



김 세이코 어르신께

10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체 강점기 사할린에 강재 징용으로

고국을 떠나 반세기가 넘도록

고향이 얼마나 그리우셨습니까?

늦었지만 꿈에도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것을 보면

저희 또한 행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할린경로당 회원 일동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x.com

Google play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